

예비 장애인의 넋두리



사람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는 정상인과 비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생활을 하는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편한 사람과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로 구분한다.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있거나 무언가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듯 한 선입관을 주는 부정적 의미를 주고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지 특정 분야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적응하기에 다소 불편할 뿐, 오히려 많은 분야에서 비장애인 보다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하던 장애인을 가르쳐 Handicap이라는 표현 대신 무엇이든 가능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Abler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그들만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스스로 장애를 갖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고도의 문명 발달로 인한 사고나 재해, 또는 현대의학으로도 치유하기 힘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가 선천적 장애인의 숫자를 상회하는 절대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현대인에게 본인의 의지로 장애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어느 나이에 장애를 갖게 될지 심하면 사망을 하게 될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뿐 그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불투명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예비 장애인이 진학을 학수고대하는 입시준비생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처럼 장애를 기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입학이나 취업이 되고 나서야 입학생이나 취업인 들만이 갖는 느낌을 공유할 수 있듯이 장애를 얻고 나서야 장애인들만의 고충을 이해하게 될 어리석은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 올지도 모를 장애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비 장애인은 아닐까?

우리말에 아직 장애인이라는 말보다 긍정적이거나 친근한 대체용어가 없어 계속해서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고집해야한다면 비장애인이라는 말보다 예비 장애인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억지 아닌 억지를 부려본다.

역사적으로 고대나 중세사회에서는 선천적 장애인들을 신의 저주를 받은 자들로 간주하고 멸시와 천대는 물론 살해하기도 하였으나, 근대에 와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종교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동정을 받고 격리수용을 받기도 한다.

이상적인 국가 모델로서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에 와서는 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사회의 소외계층을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할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있다.

“장애인이 잘사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 라는 말이 있다. 장애인 뿐 아니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제도, 더 나아가서 복지 서비스가 잘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선진국이며 그렇지 못한 나라가 후진국인 것을 견주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

●
●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는 인식 변화 필요

●
●

려를 시작했는지, 아니면 그들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과 애정이 고조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는지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알려진 통계나 정보가 보고된 바도 없고 그 것을 알아볼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선진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후진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사회복지가 서양에서 태동하고 발전하여 왔음을 감안하면 역사가 일천한 우리 국민들에게 그들 이상의 수준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순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가 발전하고 서민들의 문화 수준이 향상된 것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별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액되고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인식의 변화 없이는 장애인이나 그들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언젠가 매스컴에 장애여성과 결혼한 비장애남성을 두고 백마를 타고 온 왕자나 살신성인의 선행을 배운 성인군자처럼 떠들어대는 것을 비판하는 신문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장애인끼리의 결혼은 그러려니 하며 비장애인끼리의 결혼은 기사화하지 않으면서, 장애인과 결혼하는 여성은 성녀나 천사로 미화되고 장애인과 결혼하는 남성은 행복을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미행으로 비취지는 인식도 바뀌어져야 한다.

장애는 이동을 한다거나 듣거나 보거나 자기생각을 표현하기에 조금 불편할 뿐이며 삶을 영위하기에 불편한 것은 오히려 사회가 갖고 있는 차별과 편견으로


인하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시각 장애인들은 예민한 감촉이나 미각, 후각 등을 요구하는 직종, 예를 들어 병아리 감별사나 향수회사의 향을 비교하는 또는 맥주회사의 맛을 비교하는 직책 등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컴퓨터 관련 직종 등 집중력을 요하는 많은 분야에서 월등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필요 이상의 친절이나 동정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으며 비장애인과 똑같은 평등한 처우를 기대할 뿐이다.

자살인구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많다는 통계를 접하면서 또한 생활고를 비판한 가장이 자녀와 동반자살 했다는 답답한 소식을 접하면서 오히려 누구보다 더 삶의 애착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노력이 오히려 존경스럽다.

언젠가 장애인이 될지도 모를 예비 장애인인 우리의 인식이 그들의 눈높이로 변화하지 않는 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는遙遠하며 그들의 좌절감은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장애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끈끈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Abler에게 다가오는 새해 乙酉년에는 “장애인”이 아닌 신선하면서도 친근한 새로운 이름이 태어나,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차별 없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글 : 이 정 속 _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장애인복지과 교수